

남미를 열광시킨 'K-미술' 사비나 미술관에서 5월 까지 전시

✎ 고나리 기자 | ⓒ 승인 2022.05.09 11:45

안창홍 화백 '유령패션' 오는 29일까지 전시
에콰도르 수교 60주년 맞아 지난해 현지서 공개
국내 귀국전서 새 작품 추가 공개



(사진=사비나미술관)

[문화뉴스 고나리 기자] 에콰도르를 강타했던 K-미술 전시가 사비나미술관에서 전시 중이다.

지난 2월 사비나미술관에서 개최된 '유령패션'은 한국·에콰도르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전시된 안창홍 화백의 특별전을 국내에서 선보이는 것으로 오는 29일까지 전시된다.

안 화백은 이번 전시를 통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극심한 불안과 공포,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과 소유 개념,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원초적인 검은 욕망의 본질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작품을 선보였다.

과야사민미술관 몬테베르데홀에 설치해 에콰도르 국민과 언론매체의 주목을 받았던 '유령패션' 유화 연작 20점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디지털 펜화 80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의 특징은 국내 관객을 위해 새로 제작한 유령패션 유화 연작 9점과 평면 회화를 입체로 확장한 입체작품 3점도 추가로 전시된다는 것이다.

또 마스크 연작 23점과 디지털 펜화작품을 투명 디스플레이에 상영해 총 150 여 점을 사비나미술관 기획전 시실 2, 3층에서 최초로 소개한다.

특히 3층 전시실에는 스마트폰에 디지털 펜을 이용하여 제작된 디지털 펜화를 LG디스플레이의 협찬으로 최신 투명 OLED 디스플레이를 작품의 설치요소로 사용해 미학과 기술의 융합 및 확장을 탐색하는 작업도 선보인다.

한편 수교 60주년 특별전은 한국과 에콰도르 양국 간 문화교류의 첫 시도로 국가적 차원의 상호 문화교류 창출의 기회를 마련한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고나리 기자 press@mhns.co.kr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